

2020 세계 간호사의 해

각국 정부에 촉구 ... 간호사 교육과 근무환경에 적극 투자하라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 개혁

간호사가 긍지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주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으로 무려 70여년간 큰 변화가 없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단순 진료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국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령인구의 급증,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양상의 변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치료 중심에서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예방과 돌봄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는 데 앞장 설 것입니다.

간호 관계 법령의 체계 정비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80여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및 권한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심지어 일부 법령에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는 '세계 간호사의 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도적으로 이에 앞장서서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대내적으로는 간호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건강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리며, 42만 간호사들의 대변자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세대 '간호 100년'을 준비하는 데에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전문직 가치와 위상 높이는 기회

넬싱 나우 캠페인-나이팅게일 챌린지 추진

국제간호협의회(ICN)와 넬싱 나우(Nursing Now)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2020년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는 데 이정표가 되는 해"라면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여부는 간호사의 역할에 달려 있으며, 각국 정부는 간호사에게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CN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회장은 "간호사는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함께 하며,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과 슬픈 순간에 곁에 있다"면서 "고통 받는 상황에서 환자들을 돕고,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지켜주며 위료가 되어 준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의 일과 삶은 그 자체가 스토리이며, 2020년은 간호사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간호사의 가치를 높이고, 간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들이 인류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공헌을 하고 있는지, 간호사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해 들려주고, 간호사들이 이룬 성과를 입증해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네트 케네디 회장은 "나이팅게일 등불로 간호사들을 밝혀주었듯이 이제 세계 간호사들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사무총장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에게 투자해야 한다"며 "간호사가 충분히 배치될 때 건강결과가 향상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결과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CN과 넬싱 나우는 2020년 한 해 간호전문직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계 간호사들과 함께 일할 것"이라면서 "현재 근무 중인 간호사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게 만들고, 간호현장에서 신입간호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네트 케네디 국제간호협의회장



나이젤 크리스 넬싱 나우 공동위원장

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가 잘 교육받고 충분히 지원받을 때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2020년은 글로벌 보건의료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넬싱 나우 나이젤 크리스(Nigel Crisp) 공동위원장은 "간호사에게 투자하면 보건의료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증거는 명확하다"면서 "2020년은 역사상 전례 없는 미증유의 기회가 될 것이며, 보다 많은 간호사가 배치돼 충분히 지지받으며 일할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간호분야에 투자하면 신속하게, 비용효과적으로, 양질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각국 정부는 간호사에게 투자하는 데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하며,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넬싱 나우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간호사의 역할 강화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할 수 없으며, 간호사를 충분히 배치하고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핵심적인 활동으로 '나이팅게일 챌린지(Nightingale Challenge)'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간호사의 역량과 리더십 강화를 위해 투자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간호사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할 수 없다."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은 모든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인 2020년을 전 세계 간호사에게 헌정합니다. 각국 정부는 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